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2.10.24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1W	1M	3M	6M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KOSPI	0.0	-3.4	-7.5	-18.2	9.9	9.7	0.9	0.8	2.3	2.5	
통신업종	2.3	-3.4	-4.8	-14.8	8.4	7.4	0.7	0.7	6.2	6.7	
SK텔레콤	-0.2	-5.9	-4.2	-19.5	10.7	9.0	0.9	0.9	6.9	7.3	
KT	2.7	-1.7	-3.4	-1.2	7.3	6.7	0.6	0.5	5.9	6.4	
LG유플러스	7.7	-0.9	-7.4	-23.5	7.0	6.3	0.6	0.6	5.7	6.3	
AT&T	14.1	6.8	-7.1	-12.4	6.7	6.8	0.9	0.8	7.1	6.5	
Verizon	-2.8	-10.6	-20.5	-31.9	6.8	6.8	1.6	1.4	7.3	7.4	
T-Mobile	3.8	3.1	3.0	6.1	62.5	20.9	2.4	2.4	0.0	0.0	
NTT	1.6	4.3	3.0	6.9	12.8	11.6	1.8	1.6	2.9	3.1	
KDDI	1.1	0.3	-3.7	0.5	14.4	13.6	1.9	1.8	2.9	3.1	
Softbank	1.9	7.8	5.0	6.4	18.7	18.1	0.9	0.8	0.8	0.8	
China Mobile	-0.8	-4.2	-0.5	-8.3	7.7	7.1	0.8	0.7	8.3	9.7	
China Unicom	-0.6	-7.2	-6.7	-9.8	6.0	5.3	0.3	0.3	8.2	9.9	
China Telecom	-0.3	-1.4	5.5	-4.6	8.6	7.7	0.6	0.5	7.5	8.9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0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2.3%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AT&T 신규 월 후불 휴대폰 가입자 수 순증하며 컨센서스 상회, Verizon, Nokia 실적 컨센서스 상회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사의 망사용료 분쟁 관련 논의 지속
국내 기관은 통신 3사 순매수, 외국인인 LGU+순매수, SKT, KT 순매도

금주 전망

10/28(금) T-Mobile 3Q22 실적 발표 예정
통신 3사 3Q22 실적은 SKT와 KT 컨센 포함, LGU+ 컨센 하회 전망
삼성전자, 일본 NTT 동일본의 5G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 4.7GHz 중대역 스펙트럼 지원
5G 통신장비 업체들은 북미/인도/일본항 장비 공급 시작으로 점진적 실적 개선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6	17	18	19	20 AT&T, Nokia, Ericsson 3Q22 실적발표	21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Verizon 3Q22 실적발표	22
23	24	25	26	27	28 T-Mobile 3Q22 실적발표	29

3 주간 뉴스

▶ "JY네트워크 또 있겠다"...삼성, 日 5G 영토 확대

(더그루)

- 삼성전자, 일본 이동사 NTT그룹 계열사 NTT동일본의 5G 상용 서비스 확장을 지원한다고 발표
- TT동일본에 실내·외 기지국, 베이스밴드 장치 등으로 구성된 5G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
- 일본의 로컬 5G 네트워크 전용인 4.7GHz 중대역 스펙트럼을 지원
- ⇒ 다양한 시연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최적화 작업 마무리
- ⇒ 사업 규모 확대, 안정적인 5G 네트워크 솔루션을 구축 위해 삼성전자와의 협력 강화한 것으로 분석

▶ 미국, 중대역 5G 주파수 공급 확대

(ZDNet Korea)

- 미국에서 5G 중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 중
- 유선 인터넷망 구축에도 연방 정부 차원의 대규모 보조금 지급, 무선 주파수 영토 늘리는 방식
-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에 5천만 달러 지원되고, 연방통신위원회는 후보대역을 확정
- ⇒ 주파수혁신법안, 5G 네트워크를 위한 주요 중대역 주파수 중 최소 200MHz 폭을 경매로 공급한다는 내용
- ⇒ 지난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법안이 검토 중. 24년 11월까지 주파수 경매 절차 개시 예정

▶ 1km 상공 '플라잉 카' 띄움 6G 위성 2026년 첫 발사

(한국경제)

-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 공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 공개
- 2024년~31년까지 6천억원 투입해 6G 통신위성 관련 본체와 탑재체, 지상국과 단말국을 개발 예정
- 개인 휴대폰 전송 속도는 10Mbps, 셋톱박스형은 300Mbps 구현이 목표
- ⇒ 2026년 시제기 성격의 6G 통신위성 1기를 1차 발사, 29년 3기를 2차로 발사한다는 계획
- ⇒ 발사한 위성은 UAM, 자율주행 선박, 도서지역 통신 등에 우선 적용해 성능을 검증할 계획

▶ "5G 통신장비 보안인증 'NESAS' 국내 표준 도입 필요"

(ZDNet Korea)

- 한국정보보호학회 산하 5G보안연구회, '제 1회 5G-Advanced 보안 비전 세미나' 개최
- 5G 이동통신 보안 표준인 '네트워크 장비 보안 인증 제도(NESAS)'의 국내 활성화 필요성 주장
- NESAS는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와 국제이동통신표준화협력기구가 공동으로 제정
- ⇒ 삼성전자,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등 4대 통신장비업체는 현재 모두 NESAS 인증 받은 상태
- ⇒ EY컨설팅, 국내도 이 같은 NESAS 표준 도입이 필요, NESAS 공동 책임 모델을 제시

▶ 국감 도마 오른 '망 이용료'...국회 질타에 구글·넷플 반박 공방전

(노컷뉴스)

- 방통위 국감,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사용료 분쟁 관련 논의 지속
- 구글코리아 사장, 애플코리아 부사장, 넷플릭스서비스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참여
- 앞서 망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총 7개가 발의된 상태
- ⇒ 글로벌 CP측, 국내에 캐시서버(본사 데이터를 복사한 서버)를 구축, 망사용료 납부 의무 없다는
- ⇒ 국회는 '망 이용료' 부과 입법 추진, 글로벌 CP사 반박 이어지며 분쟁 관련 논의 지속

▶ 에릭슨엘지 "내년에는 5억명 이상이 5G 사용"

(ZDNet Korea)

- 5G 주요 트렌드로 인플레이션에 탄력적인 5G 채택, 5G 가용성, 증강현실(AR) 사용 증가 등 제시
- 5G 차세대 사용자는 네트워크 커버리지에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 5G 사용자의 AR 사용 증가, 5G 수익 모델이 진화할 거라는 전망도 제시
- ⇒ 5G 소비자들은 특히 네트워크 커버리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분석
- ⇒ 2023년까지 전 세계 5G 사용자 최소 5.1억명 이상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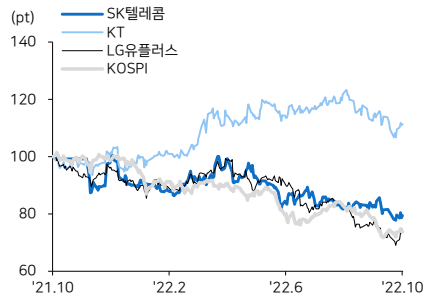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2022E	2023E	
한국	SK텔레콤	49,600	7.6	12.2	12.6	1.2	1.3	0.7	0.8	3.8	3.9	3.8	3.7	8.6	9.6
	KT	35,750	6.5	18.0	18.7	1.3	1.4	0.9	0.9	3.9	4.0	3.3	3.2	8.2	8.3
	LG유플러스	11,250	3.4	9.8	10.2	0.7	0.8	0.5	0.5	2.5	2.6	3.1	3.0	8.7	9.4
미국	AT&T	17.1	121.9	126.4	123.0	22.8	24.1	18.7	18.2	41.9	42.7	6.5	6.3	12.6	13.4
	Verizon	35.4	148.5	136.3	138.1	30.7	31.4	21.1	21.7	47.9	48.8	6.2	6.1	24.7	22.4
	T-Mobile	136.5	171.1	80.8	83.4	7.5	13.9	3.2	8.0	26.9	29.1	9.1	8.4	4.8	12.6
일본	NTT	4,034	99.2	93.4	86.6	13.6	12.7	8.7	8.4	25.2	23.3	7.1	6.8	14.6	14.4
	KDDI	4,292	67.1	41.6	38.0	8.1	7.5	5.1	4.8	13.9	12.4	6.2	6.2	13.8	13.6
	Softbank	5,758	67.4	47.3	43.5	-1.4	-6.6	4.4	5.6	4.4	4.3	51.1	46.5	4.7	7.0
중국	China Mobile	49.7	137.9	128.7	137.6	18.2	19.7	17.5	18.7	46.0	48.5	2.0	1.9	10.2	10.5
	China Unicom	3.5	13.6	48.7	51.6	1.9	2.2	2.3	2.6	13.9	14.5	0.6	0.6	4.9	5.3
	China Telecom	2.9	46.9	66.8	72.2	4.8	5.5	3.9	4.4	18.2	19.3	2.4	2.3	6.5	7.0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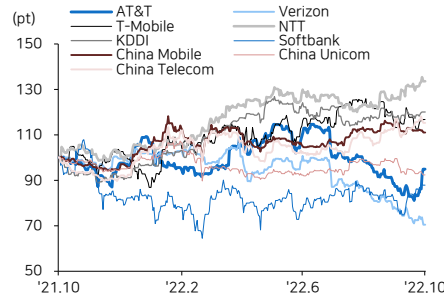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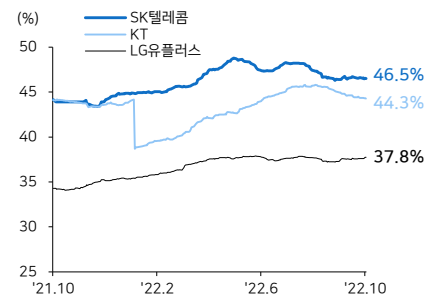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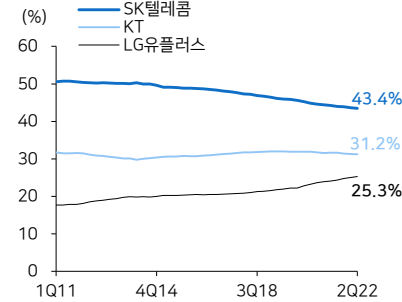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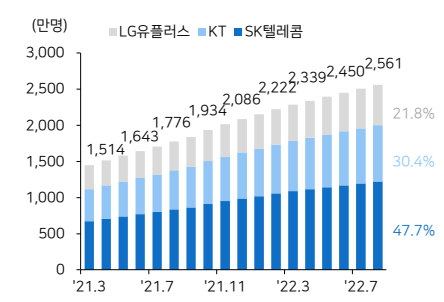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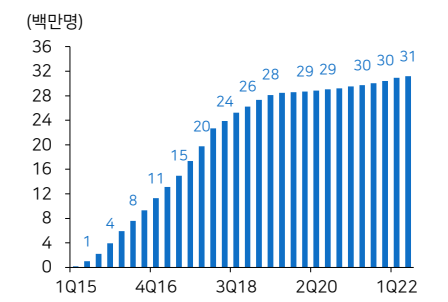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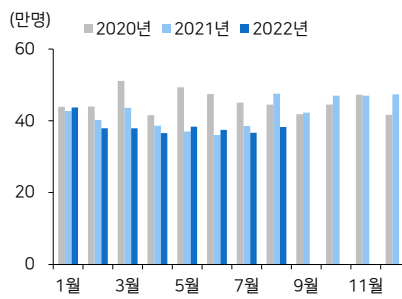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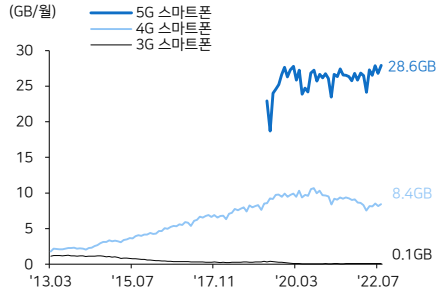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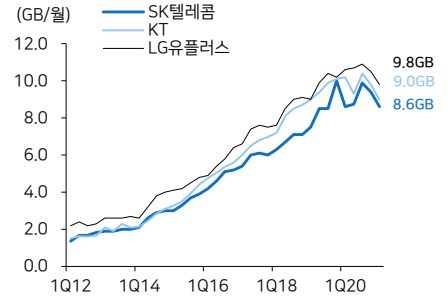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